

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	<h1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보도자료</h1>	2017. 1. 5(목)	
		작성 · 문의	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 과장 심종섭 / 사무관 정재상 (Tel. 044-200-2533)
<p>* 엠바고 : 즉시 사용</p>			

황 권한대행, 설 명절 계기 전통시장 방문 독려

- 물가안정, 소비촉진, 서민·소외계층 지원 등 담은 '설 민생안정대책 마련·시행하기로
- 美 신정부 출범 대비, 외교·통상 등 현안에 대한 지속적인 협력관계 유지 노력

□ 황교안 권한대행은 1월 5일(목)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'제8차 국정 현안 관계장관회의'를 개최하였다.

* 참석자 : 경제·사회부총리, 외교·행자부 장관, 국무조정실장 등

○ 오늘 회의에서는 경제·사회·외교·안보·치안 등 분야별 주요 국정현안을 점검하고, 최근의 민생현안을 안정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.

□ 정부는 설 명절(1.27~30일)을 대비하여 농축수산물 등 명절 성수품 물가안정, 전통시장 소비촉진, 서민·소외계층 지원 등을 담은 '설 민생안정대책'을 마련·시행하기로 하였다.

○ 황 권한대행은 “경기 회복과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, 설 명절을 앞두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작은 힘이라도 보태기 위해 쏠 부처 장관 및 기관장, 공공기관장들이 앞장서서 전통시장을 방문하여 현장과 소통하고 필요물품도 구입할 것”을 제안하고 독려하였다.

-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차기 美 행정부 출범(1.20)을 전후하여 외교·통상 등 현안들에 대해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 소통하는 등 세심히 관리해 나가기로 하였다.
- 특히, 내주 ‘한국경제설명회’(1.11 뉴욕, 경제부총리) 등을 계기로 한국의 경제정책방향 등을 설명하고 美 신정부 관련 인사 등과도 소통할 계획이다.
- 아울러, 청탁금지법 시행(‘16.9.28) 100일(1.5)을 맞아 매출액 등이 감소한 화훼·한우 등 농축수산물의 소비제고 방안도 강구해 나가기로 하였다.